

2022년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표어

우리의 영 안에서 은혜의 영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문제이다.
날마다 놀라운 신성한 전달이 일어나야 한다.
삼일 하나님은 은혜의 영을 넘치게 공급하고 계시며,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영을 받아들여야 한다.

신약의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은혜 아래 사는 생활,
곧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은혜로 체험하는 총체적인 생활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인 교회로 완결된다.

은혜는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고난과 제한과 약함을 통해 우리에게 번성한다.
우리에게 짐이 많을수록 우리는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는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산물은
하나님의 시(詩)인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몸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의의 완결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
우리의 누림을 위한 하나님 그분 자신의 풍성은 모든 한계를 초월하며,
영원토록 공개적으로 전시될 것이다.

2022년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국제 중국어 특별 집회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메시지 1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의 지대한 의미

성경: 요 1:14, 16-17, 히 10:29, 벧전 5:10, 엡 1:5-6, 2:7-8, 계 22:21

- I. 하나님의 은혜는 지대한 의미를 가진 문제이다 — 요 1:14, 16-17, 엡 2:7, 계 22:21.**
- A. 은혜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가장 큰 진리이자 가장 높은 계시이다 — 요 1:14, 16-17, 히 10:29, 고전 15:10, 빌 4:23, 계 22:21.
 - B. 우리가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신약 전체에 대한 분명한 조망이 필요하다.
- II. 신약에 따르면, 은혜는 사실상 우리에게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이다 — 요 1:16-17, 고후 12:9.**
- A. 은혜는 교리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상의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은혜는 온 존재가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생명과 힘과 위로와 안식과 빛과 의와 거룩함과 능력과 그 밖의 신성한 속성들이 포함된다.
 - B. 은혜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아니다.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되시고 우리의 체험이 되신 삼일 하나님 자신이다 — 고후 13:14.
 - C.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육체가 되신 삼일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시어 그분의 믿는 이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움직이시고 사신다 — 요 1:14, 16-17, 계 22:21.
- III. 은혜는 체현되신 삼일 하나님께서 세 방면,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방면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 고후 13:14, 민 6:22-27, 시 36:8-9.**
- A. 은혜는 근원이신 아버지와 요소이신 아들과 적용이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믿는 이들 안으로 분배되시는, 육체 되신 삼일 하나님이다 — 고후 13:14.
 - 1. 은혜의 근원, 은혜의 요소, 은혜의 적용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신성한 삼일성의 세 위격에 속한 것이다 — 마 28:19.
 - 2. 신성한 분배 안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라 불리며, 그 영은 은혜의 영이라 불리신다 — 고전 15:10, 고후 1:12, 8:1, 9, 9:14, 12:9, 13:14, 히 10:29.
 - B. 은혜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분, 곧 신성과 인성을 지닌 하나님-사람이 되시어 인간 생활을 통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시다. 지금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 고전 15:45하, 6:17.
 - C.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다 — 요 1:14, 16-17, 벧전 5:10, 고후 13:14, 히 10:29, 고전 15:10, 45하, 계 22:21.
 - D. 삼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실 수 없다 — 요 1:14, 고전 15:45하.

1.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 아들은 그 영으로 실재화되시며, 그 영은 은혜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어 우리의 누림이 되신다 — 히 10:29.
2.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시어 우리의 몫, 곧 은혜가 되게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분을 모든 것으로 누리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 고후 13:14.

IV.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 엡 1:6상.

- A.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대상이 되도록, 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존재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받은 위치 안으로 넣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 엡 1:6상.
 1. 우리가 은혜받은 위치에 있고 은혜의 대상이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
 2.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기뻐한다. 결국 상호 누림이 있게 되어 우리는 그분을 누리고 그분은 우리를 누리신다.
- B.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가리키며, 하나님은 이 아들을 기쁘게 여기신다 — 마 3:17, 17:5.
 1. 우리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 — 엡 1:6상.
 2. 그러한 대상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신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누리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 마 3:17, 17:5.

V.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시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말한다.

- A. 은혜는 우리 안으로 분배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받아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
- B. 에베소서는 구원하는 은혜가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일해 넣어지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따라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사실상 삼일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받아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
- C.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실 때, 그분은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되신다 — 고후 13:14.

VI.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는데, 이것은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 엡 1:5, 6하.

- A. 영광은 표현되신 하나님이다(출 40:34).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 B.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분의 표현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즉 그분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 엡 1:5, 6하.

VII.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 주실 것이다’ — 엡 2:7.

- A.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 엡 2:7, 롬 2:4.
- B.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은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하여 우리 안으로 분배되신 하나님 자신의 풍성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은 모든 한계를 초월한다.
- C. 오는 여러 시대, 곧 천년왕국과 영원 미래에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온 우주에 보여 주실 것이다 — 엡 2:7.